

# 채용때 용모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단속

오는 26일까지 '위반 집중신고' 혼인여부·출신지역·재산 등 포함 채용과정 권익 침해엔 신고해야

취업 준비생은 11월부터 허위로 일 자리 광고를 하거나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있으면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11월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신고받겠다고 31일 밝혔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 신고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되면서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늘려가는 추세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기간 중(8~19일)에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사업장 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사업장 45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원용수 기자 won@metroseoul.co.kr

## 〈생강 원산지 식별 방법〉



〈국산〉 황토색이고 표면이 거칠며 알이 작고 덩어리 형성이 작으며 표면에 흠이 묻어 있다.

##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연한 갈색이고 표면이 매끈하며 알·덩어리 형성이 크고 물로 세척하여 표면이 깨끗하다.

##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 원산지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늘부터 40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12월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친환경 에너지사업 활성화 비용절감 추진

## 산업부, 차량용 수소제조 원료비 인하 LNG 병커링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차량용 수소제조원가가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LNG 병커링 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



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기준 수송용 천연가스 요금(MJ당)은 현재 원료비 16.8원에 공급비 1.3원을 합한 18.1원이지만, 1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4.1원으로 낮아진다. 인하 기한은 3년이지만, 그린수소 확산속도

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LNG 병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병커링 시장 활성화를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동일한 취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태권도協 미등록도장도 '승단심사' 가능

미등록 도장 심사 5년간 1회만 개최  
공정위-태권도협회, 관행개선 합의

대한태권도협회가 학교 등 공공시설 스포츠센터에 개설된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협회 비가입 도장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해 만 15세를 기준으로 1~4품과 1~9단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생들의 주요 수련 목표다. 때문에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태권도장 신고사업자는 1만298곳인데, 이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은 9890개(96%), 협회 미등록도장은 408개

(4%)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년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하는데,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해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되는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은 사실상 의무화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협중앙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

지방자치단체장 8인 수상자로 선정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1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수상 대상자인 엄태준 이천시장, 장신상 횡성군수, 조병목 음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이승울 청도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협은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신설해 지난 6월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참조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인구 증대 등 농업전망기반 강화에 이바지한



10월 2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에서 왼쪽부터 서춘수 함양군수(정순자 여사 대리참석), 이승울 청도군수, 조병목 음성군수, 엄태준 이천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송귀근 고흥군수(류나영 고흥군 인구정책과장 대리참석), 박성일 완주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장 8인을 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농업인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시장·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